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겨울축제를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단체명	공연명	대표자명
극단 별 비612	그림자 인형극 - 이야기 쏙! 이야기야!	인정아
극단 여기,우리	꼬마야, 꼬마야	김유인
극단문(theater Moon)	플란다스의 미친 개	정진새
문화예술굴터 빵	둥둥 주의보: 어둠기 전에 돌아오렴	김도란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	박녕쿨
인형극단 아토	어느날 까치를 보았는데...	문재현
하망세	걸리버 여행기 ZOOM IN OUT	문숙경

※ 단체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 총평

총평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이자 제34회 서울어린이연극상 후보작 공모에 신청 해주신 모든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48개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모였고, 각 작품이 지닌 고유한 작품성에 감탄과 고민이 공존하는 어려운 심사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올해의 특이점 중 가장 반가웠던 점은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회원 극단의 공모 접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회원 극단들의 최근작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젊은 창작집단의 개성 있는 작품과 동시대적 감각을 담아낸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하신 글과 제출 영상을 보며 창작자들의 진심 어린 고민과 어린이·청소년 관객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대 언어의 감각적 실험과 시각적 완성도 면에서 성숙한 시도들이 보였습니다. 한편 형식 면에서는 인형극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고, 이전과 비슷한 추세로 1인극 작품도 다수 지원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동안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쌓아온 ‘축제의 고유성’과 ‘어린이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세심한 시선으로 장르적 안배와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작품을 고루 선정하고자 노력했으며, 오랜 토론 끝에

최종 7작품을 엄선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이 선정작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점에 대해 부디 공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최종 선정작은 장르적으로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개성을 가진 2편의 그림자극 (그림자 인형과 배우가 넘나들며 재담 넘치는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 느린 호흡으로 사유하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촛불과 한지와 붓을 이용한 작품), 놀이성과 음악성으로 관객과 놀 듯이 소통하는 언버벌 가면극, 비인간·동물의 관점으로 익숙한 동화의 세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연극, 어린이의 불안을 참신한 오브제를 통해 이야기하는 봉지 오브제극, 예술가 아빠들이 들려주는 '이무기'와 '용'에 관한 이야기를 무용, 음악, 연극이 융합된 형식으로 풀어낸 가족 음악 무용극, 핸드폰 실시간 촬영과 영상 투사를 통해 소인과 거인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멀티미디어 영상극까지 총 7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께도 함께 힘내서 나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객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어떻게 선사할 것인가에 대한 더욱 깊어진 고민을 함께 나누며, 곧 다가올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8월 1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신인선
심사위원 김형희, 김이율, 손준형, 윤종연